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123호　(음력 3월 1일)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반드시 뚫자"

권오봉 여수시장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 될 것" 전망

장충남 남해군수 "동서통합 출발점·동반성장 신호탄"

"남해와 여수, 양 지역에 큰 축복이 될 사업이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는 10일 전남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남해~여수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과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 그리고 여수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민간 단체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여수시 남해군 향우회 역시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이 창출할 시너지 효과와 건설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여수시 범시민 15만명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 전달된 '남해군 4만명 서명부'와 더불어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한 양 지역 주민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표출될 전망이다.

안규철 여수시 추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통합,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 바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라며 "남해안 남중권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은 여수 시민과 남해군민의 역량이 모이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이렇게 총집결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이루어내자"며 "여수와 남해가 연결되면 관광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여수 추진위에 출범식에 참석하니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가슴 벅차다"며 "남해군과 여수시의 상생발전은 물론, 동서통합의 출발점이자 경남과 전남 동반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영제 의원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타의) 경제성 분석에서 예전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이제 관건은 지역균형발전성과 정책성 평가"라며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파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다"며 "1시간 30분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됨으로써 나타날 시너지 효과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원회는 범시민 15만명 서명운동과 더불어 청와대·국회·정부에 건의서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온전한 진실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전남 목포신항만에 육상 거치된 선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7주기 앞둔 세월호 참사 추모 발길

세월호 선체 거치 목포신항 전국서 추모 발걸음 잇따라 "안전사회 조성·진상 규명"

"잊지 않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주변. 인양 이후 줄곧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항만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듯 빛바랜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지만 '안전 사회 염원' 글귀 만은 또렷했다.

가족 단위로 모인 추모객들은 세월호가 세워진 장소를 찾아 아픔을 기억하고 나눴다.

세월호가 보이는 먼 발치에서 발걸음을 쉽사리 떼지 못하는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다. 항만 경비용 철조망에 매달린 노란 리본 글귀와 진상규명을 설명한 안내판도 천천히 곱씹으며 읽기도 했다.

어머니가 미수습자 5명에 대해 설명하자, 어린 자녀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녹이 슨 세월호를 바라보다 '어쩌다 어린 학생들이…'하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목포시민 이모(39·여)씨는 "자녀들이 도로 곳곳에 걸린 노란 리본을 궁금해 했다. 참사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잠시 들렀다. 참사가 일어난 지 수 년이 흘렀지만, 희생자를 생각하면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했다.

김모(45)씨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안전 대응 체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시민 정모(32)씨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나'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모(32·여)씨는 "해경 등 구조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본다. 공정한 기준과 상식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60세 미만 AZ 접종 오늘부터 재개…30세 미만 제외

1차 접종자는 동일백신 2차 접종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오후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8일부터 혈전 분야 자문가 자문단,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12일부터 2분기 접종 일정을 계획대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한 특수교육·장애아 보육, 감염 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고,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요양병원·요양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단 3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단은 "30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2차 접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희귀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 2차 접종도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한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도민과의 대화 잠정 연기…순천 집단감염 '위중'

전남도가 순천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그동안 비대면 위주로 진행했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영암, 14일 순천으로 예정됐던 도민과의 대화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12일 광양을 시작으로, 무안, 구례, 목포, 장흥지역 주민과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영상 참여 위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순천에서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 47명(해외 입국 발 감염 제외)이 발생했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지속돼 방역망 구축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